

#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성 준 모  
(나사렛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 자아존중감이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중에서는 나이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을 결합하여 투입한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련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개입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용어: 저소득층 중년여성,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 자아존중감, 패널회귀분석

이 논문은 2010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투고일: 2010. 10. 15    ■ 수정일: 2010. 11. 19    ■ 게재확정일: 2010. 12. 5

## I. 연구의 필요성

왜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에 주목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여성의 우울 가능성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ackett et al., 2007). 2006년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의 우울증 일년 유병율은 남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년 여성의 우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40대 여성의 우울증 일년 유병율은 2.5%로 최저수준인데 비해, 50대 여성은 4.7%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중년기 이후 최저점에서 시작하여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짓회귀분석을 통하여 우울증 발병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고 위험 연령군은 45세에서 64세 사이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김진영(2009)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우울은 30대 후반에 최저점에 있다가 중년기에 점차 높아지면서 노년기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년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른 우울정도의 변화곡선에서 매우 불안정하며 점차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중년여성중 우울문제는 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와 낮은 소득수준은 우울증의 발생과 지속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eard et al., 2008). 중년여성의 우울도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인 상태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경숙, 1993; 변외진 · 김춘경, 2006; 신경림, 1999). 낮은 경제상태는 중년여성의 생활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박금자 · 이경혜, 2002).

그렇다면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가족 상호작용과 관련한 변수는 성 차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성의 심리적인 측면을 잘 반영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Gabriel, Beach & Bodenmann, 2010). 중년기 여성들은 자녀독립에 따른 역할변화와 폐경 등의 신체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정체감의 위기를 맞으면서 우울하게 되기도 한다(변외진 · 김춘경, 2006).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우울 또한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여성들은 대부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문제, 중요한 지지관계 상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과 부정적 사고 등으로 스트레

스 수준이 높으며, 자녀가 독립하기 시작하고 자녀양육 역할이 감소하면서 가정내 일이 축소되고 현실과 기대감의 차이로 인한 허탈감이나 심리적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 지면 의욕감퇴, 정서적 불안정, 자존감 상실, 우울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이평숙 · 손정남 · 이용미 · 강현철, 2005).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인의 내적인 인지적 해석이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 중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각되어 왔다(Fennell, 2004).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취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Beck, 1967; Rosenberg, 1965; Hankin et al., 2007), 우울증의 선행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u & Wu, 1998). 중년여성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중년여성의 우울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박금자 · 이정혜, 2002; 박현숙, 2002; Brown et al., 1986).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계만족, 그리고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우울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부 연구들이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가족관계,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중년여성의 우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미래, 2007; 김순이 · 이정인, 2007; 박금자 · 이정혜, 2002; 이숙, 1994; Brown et al., 1986; Culp & Beach, 1993; Maestas et al., 2008; Shahr, Blatt & Zuroff, 2007). 이들 연구중 자아존중감이 우울증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김미래, 2007; Culp & Beach, 1993)가 있으며, Culp와 Beach(1998)는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관계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연구하였다. Shahr 등(2007)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계 만족의 완충효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저소득층 중년여성은 우울의 취약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대부분이 연구대상을 편의표집함에 따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횡단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관계만족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다룬 연구가 매우 적으며, 상호작용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종단적 패널자료를 통하여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로 투입한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 관계특성,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의 특성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한다. 둘째, 종속변수로 투입한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수준과 우울 의심군 발생률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즉,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만족 등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관계만족 변수가 결합한 상호작용변수가 시간경과에 따라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문헌 고찰

중년여성의 우울을 설명하는 이론은 전통적인 Beck(1967)의 인지이론(cognitive theory)에서부터, Rosenberg(1979), Stryker(1980)와 Serpe(1982) 등의 역할 정체성 이론(rele-identity theory), John 등(1991)과 Jack(1991)의 관계내 자아이론(self-in-relation theory), Mirowsky(1985)와 Peterson(1981) 등의 공평성 이론(equity theory)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으며, 가족간 상호작용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박정희·유영주, 1999 : 98에서 재인용). 미국의 종단자료인 ASOC(Aging, Status, and the Sense of Control)를 활용한 Kim(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통제감(the sense of control)이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개인의 통제감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요소가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족(사회적) 관계만족,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은 개인 자신과 주변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로서, 개인의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의 관계에 대한 근거를 기존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관계만족, 인구학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첫째,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 1967; Rosenberg, 1965). Beck(2001)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Fennell(2004)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개인의 부정적인 사고가 우울증의 유지와 발달(심각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년기 성인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켜 가면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순이 · 이정인, 2007). 박금자와 이경혜(2002)가 중년여성의 우울구조모형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숙(200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중년여성의 우울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미례(2007)는 기혼여성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강조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우울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설명을 하였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주변의 스트레스 요인과 상관없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우울증에 쉽게 노출된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Hankin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만족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는 우울과 관련이 있다. Sacco와 Beck(1985)은 우울이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관련이 있으며,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울을 강화한다(김수지 · 고성희, 1989 : 180-181에서 재인용)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나 소외감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과 관련이 있으며,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냐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정민자, 1992). Giesler와 Josephs 그리고 Swann(1996)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우울증에 노출된 사람의 82%가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만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Gabriel과 Beach, 그리고 Bodenmann(2010)의 연구에서도 부부관계 만족도는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보다 우울증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만족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수행시 성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년여성들중 주부들은 남편이나 자녀의 성공을 통해 가정에서 자신의 헌신적인 역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와 남편,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실패감을 느낀다(박정희·유영주, 2000). 따라서,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와 같은 주관적 지각은 우울과 같은 부적응 상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유정현·성혜영, 2009). 특히, 중년여성들은 자신의 개인적 목표성취보다는 자녀양육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며, 가족내에서 발생한 부정적 관계경험이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우울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박정희·유영주, 2000). Shahar와 Blatt, 그리고 Zuroff(200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우울증의 자기비판적인 부정적 사고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자기비판적인 사고가 중간수준에 있는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의 관계에서 기존 문헌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관계만족 변수는 우울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Brown 등(1986)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면서 가족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기혼여성들의 우울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여,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Culp와 Beach(1993)는 결혼한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부부 불만족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부만족이 우울에 대해 가지는 효과가 여성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정해 볼 수 있다. Sacco와 Phares(2001)는 우울증 관련 연구에서 결혼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증진모델(self-esteem enhancement model)을 채택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에 노출되며,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피드백에 집중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발생에 기여하게 되며, 대인관

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우울증을 심화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Maestas 등(2008)은 우울증을 경험하는 여성을 우울증 정도에 따라 높은 우울집단과 낮은 우울집단으로 나눈 후, 배우자의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배우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여성의 낮은 자존감과 결합하여 심각한 우울상태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도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관계변수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관계만족 변수들과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지?, 이 상호작용 효과가 종단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분명히 밝혀진 바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종단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넷째, 중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 구성형태 등을 들 수 있다. Miech와 Shanahan(2000)은 생애주기에 따라 나이와 교육수준이 우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이후 우울정도가 점차 늘어나며,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교육수준 편차가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나이가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우울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로는 김진영(2009)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우울은 중년기 이후에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어, 중년여성의 우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 중년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박희정, 1998; 신경림, 1999; 박남숙, 2001). 특히,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중년여성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보다 우울정도가 2.9배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변외진·김춘경, 2006). 중년여성의 결혼상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보다는 별거, 이혼, 사별 등의 특성을 가진 가구의 중년여성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경림, 1999; 박남숙, 2001). 그러나 변외진과 김춘경(2006)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재혼가구가 다른 형태의 가구보다 우울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3개 년도 자료(2006년부터 2008까지)이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패널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한 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균등화 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원중 41세부터 60세까지의 중년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변수인 우울 척도, 관계만족 척도, 그리고 자아존중감 척도에 응답하지 않아 분석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은 연도별로 각각 1차년도 754명, 2차년도 545명, 3차년도 502명이다.

#### 2. 분석변수

##### 가. 우울

우울척도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통하여 측정되었고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리커트식 척도로 조사당시, 과거 1주일간의 우울과 관련한 내용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은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신체적 저하(2 문항), 우울정서(4 문항), 긍정적 정서(2 문항), 그리고 대인적 실패감(3 문항) 등이다. 자료 분석시 2개 문항(‘비교적 잘 지냈다’, ‘불만없이 생활하였다’)은 역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 척도의 응답범위는 1점(극히 드물다)에서 4점(대부분 그랬다)까지이며, 분석시에는 변수 값을 0점에서 3점까지로 리코딩한 합 점수를 사용하였다. 전체 합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합점수가 16보다 높으면 우울증 진단을 의심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측정변수는 각 요인의 평균치를 구하여 이 값을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Cronbach's alpha값으로 알아 본 3개 년도(2006~2008년)의 내적일치도는 요인별로 각각 신체적 저하 .58~.60, 우울정서 .86~.88, 긍정적 정서 .70~.76, 대인적 실패감 .58~.62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년도별 일치도는 .87~.89로 나타났다.

##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SE ; Rosenberg Self Esteem Scale)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리커트식 척도로 조사당시 현재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은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료 분석시 부정적 자존감과 관련한 5개 문항('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은 역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 척도의 응답범위는 1점(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이며, 전체 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측정변수는 2개 요인의 평균치를 구하여 이 값을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Cronbach's alpha값으로 알아 본 3개 년도(2006~2008년)의 내적일치도는 요인별로 각각 긍정적 자존감 .75~.78, 부정적 자존감 .54~.55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년도별 일치도는 .74~.76으로 나타났다.

## 다. 관계 만족

관계 만족정도는 조사대상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족관계 만족정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정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들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 본 것이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본 것이다. 각각 단일 문항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범위는 '매우 만족(5점)'부터 '매우 불만족(1점)'까지이다.

## 라.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인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특성중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 구성형태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척도의 정의

구분	형태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우울)	서열	CES-D 11 우울척도	0점(극히 드물다) ~ 3점(대부분 그랬다)
	연속	나이	단위(세)
통제변수	서열	교육수준	무학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졸업 이하 = 3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 전문대학 졸업 이하 = 5              대학교 졸업 이하 = 6 대학원 이상 = 7
	dummy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 1 기타 = 0(사별, 이혼, 별거, 비헤당)
	dummy	가구 구성형태	부모자녀 가구 = 1 기타 = 0(단독,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
독립변수	서열	가족관계 만족도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
	서열	사회관계 만족도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
	서열	Rodenberg 자아존중감	1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 4점(항상 그렇다)

##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자료 분석은 STATA 1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개년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데이터를 개체병합(case merge)하였으며, 패널회귀분석을 위해, 가구원 ID를 기준으로 세로연속형태 패널자료(long type panel data)로 변환하였다. 또한, 개인 표준가중치(중단면분석)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분석을 통하여 변수의 특성을 알아

보았다. 둘째, 연도별로 변수의 하위범주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 F-test(One-Way ANOVA), 그리고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독립변수의 변화정도가 우울의 증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따라 작성된 패널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beta_0 + \beta_1 X_{1it} + \beta_2 X_{2it} + \beta_3 X_{3it} + \beta_4 X_{4it} + \beta_5 X_{5it} + \beta_6 X_{6it} + \beta_7 X_{7it} + \beta_8 X_{8it} + \beta_9 X_{9it} + u_i + e_{it}$$

$$Y_{it} = \text{우울}$$

i(group variable) = 가구원 ID,

t(time variable) = 시간(2006~2008년)

$\beta_0$  = 절편,  $\beta_1 \sim \beta_9$  = 기울기

X1=나이, X2=교육수준, X3=혼인상태, X4=가구구성형태, X5=가족관계 만족도, X6=사회적 관계만족도, X7=자아존중감, X8=가족관계만족도x자아존중감, X9=사회적관계만족도x자아존중감

$u_i$  = 고정오차(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차항)

$e_{it}$  = 변동오차(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오차항)

## IV. 분석 결과

### 1. 독립변수의 특성 분석

패널회귀모형에 투입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도, 하위범주별 분포특성, 그리고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sup>2</sup>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로 투입한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형태 등의 특성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의 평균나이는 연도에 따라 50.67세에서 51.09세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빈도분석에서는 40대보다 50대인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50대가 40.4%, 40대가 49.6% 였다. 교육수준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각각 32.9%, 32.8%로 가장 많았고 2008년에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3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연도별로 각각 68.8%, 66.4%, 64.7% 등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사별, 별거, 미혼인 경우가 그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 형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연도별로 각각 84%, 81.8%, 82.5%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가족(단독가구, 부자가구, 모자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연도별로 각각 16%, 18.2%, 17.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독립변수의 특성 분석

n(2006년=754명, 2007년=545명, 2008년=502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전 체	Chi-Square F test	
통제 변수	나이	40대	376(49.90)	271(49.70)	246(49.00)	893(49.60)	.096
		50대	378(50.10)	274(50.30)	256(51.00)	908(50.40)	
		평균(표준편차)	50.67(05.97)	50.77(05.91)	51.09(05.97)	50.82(05.95)	
	교육 수준	무학	30(04.00)	20(03.70)	30(06.00)	80(04.40)	-
		초등학교	228(30.20)	169(31.00)	176(35.10)	573(31.80)	
		중학교	186(24.70)	140(25.70)	128(25.50)	454(25.20)	
		고등학교	248(32.90)	179(32.80)	136(27.10)	563(31.30)	
		전문대학	23(03.10)	15(02.80)	18(03.60)	56(03.10)	
		대학교	37(04.90)	21(03.90)	13(02.60)	71(03.90)	
		대학원 이상	2(00.30)	1(00.20)	1(00.20)	4(00.20)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519(68.80)	362(66.40)	325(64.70)	1,206(67.00)	6.687
		사별	77(10.20)	56(10.30)	64(12.70)	197(10.90)	
		이혼	107(14.20)	88(16.10)	75(14.90)	270(15.00)	
		별거	28(03.70)	20(03.70)	21(04.20)	69(03.80)	
		미혼	23(03.10)	19(03.50)	17(03.30)	59(03.30)	
가구 형태	부모-자녀 가구	633(84.00)	446(81.80)	414(82.50)	1,493(82.90)	.019	
	기타	121(16.00)	99(18.20)	88(17.50)	308(17.10)		
독립 변수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3.63(0.82)	3.58(0.88)	3.65(0.86)	3.62(0.85)	1.048	
	사회적 관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3.39(0.85)	3.56(0.84)	3.56(0.85)	3.49(0.85)	8.518***	
	자아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2.12(0.45)	2.16(0.49)	2.86(0.46)	2.34(0.57)	432.143***	

\*p<.05 \*\*p<.01 \*\*\*p<.001

둘째, 독립변수로 투입한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특성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관계 만족도 관련 변수중, 가족관계 만족도는 2006년(평균 3.63, 표준편차 0.82)에서 2007년(평균 3.58, 표준편차 0.88), 그리고 2008년(평균 3.65, 표준편차 0.86)까지 증가이 반복되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2006년(평균 3.39, 표준편차 0.85)에서 2007년(평균 3.56, 표준편차 0.84), 그리고 2008년(평균 3.56, 표준편차 0.85)으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며, 2006년 이후 만족도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2006년(평균 2.12, 표준편차 0.45)에서 2007년(평균 2.16, 표준편차 0.49), 그리고 2008년(평균 2.86, 표준편차 0.57)까지 유의미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 2. 우울 특성 분석

분석대상자의 우울특성을 연도별로 알아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우울 합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의 빈도와 백분율을 연도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연도별로 우울 합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평균 8.244, 표준편차 6.834)에서 2007년(평균 8.402, 표준편차 6.794)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2008년(평균 7.6, 표준편차 6.67)에 우울정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여부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표 3. 우울 특성 분석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F-test
					Chi-Square Test
우울 점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8.244(6.834)	8.402(6.794)	7.600(6.670)	2.158
우울증 여 부*	우울	305명(40.5%)	228명(41.8%)	187명(37.3%)	2.409
	비우울	449명(59.5%)	317명(58.2%)	315명(62.7%)	

\*p<.05 \*\*p<.01 \*\*\*p<.001

※ 우울특성 분석내용중 ‘우울증 여부’는 위의 ‘우울점수 합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CES-D 11의 합 점수 X 20/11)한 다음, 이를 우울증 절단점 16점을 기준으로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으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한 결과이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Grouping을 한 이유는 원 척도인 CES-D 20을 통하여 임상적인 우울증 의심 집단을 Grouping을 할 때, 20문항에 대한 합 점수 기준으로 절단점 16점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각 연도별로 우울 의심집단이 전체의 40.5%, 41.8%, 37.3% 등인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우울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패널 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독립변수의 변화정도가 우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 4>와 같이 알아보았다. 이 방법을 적용한 분석에서는, 상수항(패널회귀식의 절편, 고정오차)은 각 패널 케이스마다 서로 다르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후, 최소제곱더미변수(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추정량을 얻음으로써 시점의 변화에 대한 회귀추정치를 제시하게 된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중에서는 나이가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경과에 따라 개인의 나이가 1살 증가하면 우울정도가 1.069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관계 만족도 변수들도 우울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경과에 따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가 1단위 증가하면 개인의 우울수준은 1.55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라 사회적 관계 만족 정도가 1단위 늘어나면 우울수준은 0.648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인의 만족 지각이 우울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증가는 오히려 우울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1단위 증가하면 우울도 0.742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연도별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는 두 변수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3차년도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만족도 변수를 결합하여 투입한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패널 회귀분석 ; 시간경과에 따른 우울의 영향요인

Fixed - effects (within) regression		Number of obs = 1,801			
Group variable(i): id		Number of groups = 1,014			
R-sq: within = 0.1111		Obs per group: min = 1			
between = 0.0174		avg = 1.8			
overall = 0.0199		max = 3			
corr(u_i, X) = -0.7350		F(09,778) = 10.80			
		Prob > chi2 = 0.0000			
독립 변수	Coef.	S.E	t	[95% Conf. Interval]	
나이	1.069	.410	2.60**	.263	1.876
교육수준	-.824	1.165	-.71	-3.111	1.461
혼인상태(배우자유=1,기타=0)	-.412	1.528	-.27	-3.412	2.588
가구형태(부모자녀가구=1,기타=0)	.429	1.195	.36	-1.917	2.776
가족관계 만족	-1.550	.247	-6.28***	-2.034	-1.065
사회적관계 만족	-.648	.229	-2.83**	-1.098	-.198
자아존중감	.742	.343	2.16*	.068	1.417
가족관계 만족 x 자아존중감※	-.636	.402	-1.58	-1.427	.153
사회적관계 만족 x 자아존중감※	-.371	.419	-.89	-1.193	.451
_cons	-36.860	21.981	-1.68	-80.008	6.288
sigma_u	8.763				
sigma_e	4.711				
rho	.776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 = 0 : F(1013, 778) = 2.04 Prob > F = 0.000					

\*p<.05 \*\*p<.01 \*\*\*p<.001

※ 상호작용효과는 우울에 대한 관계 만족 변수의 효과가 다른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의 각 수준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작용 변수는 각 연도별로 관찰값(X)에서 평균값(X)을 빼주는 센터링(centering)을 통한 편차점수(deviation score)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법은 두 변수를 곱을 변수로 투입할 때 증가하게 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박광배, 2003).

## V.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관계 만족,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통하여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에 대한 정책적·임상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정도는 시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우울증 의심집단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평균 8.244, 표준편차 6.834)에서 2007년(평균 8.402, 표준편차 6.794)까지 우울정도가 증가하다가 2008년(평균 7.6, 표준편차 6.67)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의심집단은 연도별로 각각 40.5%, 41.8%, 37.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서 밝힌 40대와 50대 중년여성의 우울증 일년 유병률인 2.5%와 4.7%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본 연구와 역학조사 결과의 차이는 우울증에 대한 정의(진단기준)가 다르기 때문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는 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진단기준을 적용한 반면, 본 연구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우울감 호소가 반영된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가정하더라도, 저소득층 중년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우울수준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울발생에 취약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중년여성에 대한 정신건강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이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저소득층 중년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화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통하여 개개인에 대한 우울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강상경·권태연, 2008).

둘째, 시간에 따른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 정도의 변화는 우울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만족 변수중 가족관계 만족이 사회적관계 만족보다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울을 강화한다는 Sacco와 Beck(1985)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만족은 우울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사회적 관계만족 정도의 변화도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우울증의 자기비판적인 부정적 사고의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한 Shahar 등(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관계를 파악한 Bourdieu의 사회적 자

본(social capital) 개념과, 타인들과의 관계를 개인의 포괄적인 태도와 믿음으로 개념화한 Lee와 Rebbins(1998)의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자본 개념은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의 유용한 개념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김연희·김선숙, 2008: 106에서 재인용), 가족환경이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우울을 설명하려는 본 연구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연결성의 개념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관계를 말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나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과 달리,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enduring)이고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하는(ubiquitous) 자신의 느낌이라고 정의되는 개념이며, 이 개념은 생애주기를 통하여 개인의 경험에 따라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ee & Rebbins, 1998). 따라서, 가시적이고 실재적인 관계보다 저소득층 중년여성 본인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주관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살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논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계증진 프로그램보다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저소득층 중년여성에 대한 가족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두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와 가족관련 기관들이 이들의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개별적 서비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시간에 따른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 변화는 우울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증가가 우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Beck(1967, 2001)이 우울의 예측요인으로 언급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과도 방향이 다른 결과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국내 연구들(김순이·이정인, 2007; 박금자·이경혜, 2002; 박현숙, 2002)과도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본 연구가 종단연구라는 점에서 측정시점의 서로 다른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앞의 연도별 평균비교 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연도별로 계속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 우울정도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가 연도별로 상이하여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던 점은, 향후 누적된 패널자료를 통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의 관계만족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사한 연구들(Brown et al., 1986; Culp & Beach, 1993; Sacco & Phares, 2001)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두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를 시사하는 내용을 언급하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시간을 고려한 종단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인과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시도이므로, 자아존중감과 관계만족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분명한 논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섯째, 시간에 따른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나이 증가는 우울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나이가 우울의 영향요인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종단연구를 통하여 나이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적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이의 변화가 우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이 점차 심각해 진다고 보고한 김진영(200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나이에 따라 위험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50대 중년여성의 우울수준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우울 모니터링과 우울 예방을 위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모형은 중년여성의 우울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울에 대한 연령증가의 영향을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 자아존중감, 나이 등이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종단자료를 분석하여 변수간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울에 대한 관계만족 변수의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련한 내적 요인들에 대해 분명한 해석

을 통해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본 연구의 모형내에서 설득력있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종단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우울발생 시점, 발생 원인, 치료와 병의 경과 등과 같은 우울의 주요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단순하게 변수간의 인과관계로만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차원의 변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들(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간의 인과관계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우울외의 다른 변수들은 우울의 선행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울로 인한 결과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우울로 인하여 생산성과 대인관계 기능이 저하되면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각 조사시점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패널탈락자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탈락자의 패턴이 특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추적되지 못한 패널탈락 대상들과 3차년도까지 모두 참여한 대상들 사이의 측정치들이 기초선에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준모는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건강정책 및 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 사회복지 연구방법론 등이며, 현재 사회경제적 상태와 우울의 종단적 관계,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E-mail: sung@kornu.ac.kr).

## 참고문헌

- 강상경, 권태연(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pp.332-355.
- 김미례(2007).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2(4), pp.761-777.
- 김수지, 고성희(1989). 우울 발생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간호학회지*, 19(2), pp.173-190.
- 김순이, 이정인(2007).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4(1), pp.103-109.
- 김연희, 김선숙(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pp.103-127.
-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중년기 여성이 인지한 가족 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9(1), pp.121-135.
- 박광배(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금자, 이경혜(2002). 중년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 pp.69-84.
- 박남숙(2001).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박정희, 유영주(1999). 주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pp.91-119.
- 박정희, 유영주(2000).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pp.155-174.
- 박현숙(2002). 중년여성의 우울,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및 낙관성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3), pp.352-362.
- 박희석, 손정락(1991). 우울집단에 대한 인지-행동처치가 개인적 구성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0(1), pp.315-329.
- 박희정(1998). *중년기 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 변외진, 김춘경(2006). 중년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7),

pp.125-139.

- 보건복지부(2006).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신경림(1999). 중년여성의 우울증상 실태조사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1(4), pp.858-870.
- 유정현, 성혜영(2009). 노년기 우울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9(2), pp.717-728.
- 이삼순, 최원희(2006). 일지역 중년여성의 우울증 선별조사 연구: 거제시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15(4), pp.353-361.
- 이 숙(1994). 일부 도시주부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2), pp.80-97.
- 이평숙, 손정남, 이용미, 강현철(2005). 일 도시지역 중년여성의 정신건강상태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35(2), pp.239-251.
- Beard, J. R., Tracy, M., Valhov, D., Galea, S.(2008). Trajectory and Socioeconomic Predictors of Depression in a Prospective Study of Residents of New York City. *Annals of Epidemiology*, 18(3), pp.235-243.
- Beck, A. T.(2001).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Nursing Research*, 50, pp.275-285.
- Beck, A. T.(1967).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 Harper and Row.
- Brown, G. W., Andrew, B., Harris, T., Adler, Z., Bridger, L.(1986).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16, pp.813-831.
- Culp, L. N., Beach, S. R. H.(1998). Marriage and Depressive Symptoms : The Roles and Bases of Self-esteem differ by Gender.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22(4), pp.647-664.
- Fennell, M. J. V.(2004).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Mindful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pp.1053-1067.
- Christopher, A. L., Dorahy, M. J., Schumaker, J. F.(1999).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Northern Irish Adul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9(4), pp.533-535.
- Gabriel, B., Beach, S. R. H., Bodenmann, G.(2010). De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and

- Communication in Couples : Investigating Gender Differences. *Behavior Therapy*, 41, pp.306-316
- Giesler, R. B., Josephs, R. A., Swann, W. B.(1996). Self-verification in Clinical Depression : The Desire for Negative 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3), pp.358-365.
- Hackett, R. J., Sagdeo, D., Creed, F. H.(2007). The Physical and Social Associations of Common Mental Disorder in a Tribal Population in South India.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 pp.712-715.
- Hankin, B., Lakawalla, Z., Carter, I. L., Abela, J. R. Z., Adams, P.(2007). Are Neuroticism, Cognitive Vulnerabilities and Self-esteem Overlapping or Distinct Risks for Depression? Evidence from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1), pp.29-63.
- Kim, J. Y.(2010). Age Groups, Psychological Factors, and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in the US. *보건사회연구*, 30(1), pp.281-305.
- Koivumaa-Honkanen, H., Kaprio, J., Honkanen, R., Viinamaki, H., Koskenvuo, M.(2004).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a 15-year follow-up.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 pp.994-999
- Lee, R. M., Robbins, S. B.(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Anxiety, Self-esteem, and Soci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pp.338-345.
- Lu, L., Wu, H. L.(1998). Gender-role Traits and Depression : Self-esteem and Control as Mediator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1(1), pp.95-107.
- Maestas, K. L., Amidon, A., Baum, E. S., Chrisman, J. G., Durham, J. A., Rooney, S. B., Rude, S. S., Swann, W. B.(2008). Partner Devaluation is Associated with Depression Symptoms among Depression-Vulnerable Women with Low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6), pp. 621-640.
- Miech, R. A. Shanahan, M. J.(2000).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pp.162-176.
- Sacco, W. P., Phares, V.(2001). Partner Appraisal and Marital Satisfaction ; The Role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pp.504-513.

Shahar, G., Blatt, S. J., Zuroff, D. C.(2007).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 buffers The Adverse Effect of (Mid-Level) Self-Critical Perfectionism in Brief Treatment for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sychology*, 26(5), pp.540-555.

#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the Depression among the Low-income, Middle-aged Korean Women

**Sung, Jun Mo**

(Korea Nazarene University)

---

Using the wave 1~3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low-incom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level. Among the control variables, age had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in intervening low-incom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policies to enhance family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self-esteem should be prepared and those policies should consider life cycle.

---

**Keywords:** Low-income Middle-aged Wome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Self-esteem, Panel Regression Analysis.